



선암스님 사진집 '蓮'

27년간 연꽃을 렌즈에 담은 선암스님(신촌 봉원사 사회부장)이 사진집 '蓮'을 발간했다. 이 사진집에는 가시연 등 희귀 연꽃과 사계절의 연꽃의 다양한 모습 200컷이 올 칼라로 담겨있다. 값 5만원

서울·제주서 '선면전'

단오절을 맞아 제9회 한국선면전이 22~28일 서울 롯데갤러리(02-726-4428) 6월4~10일 제주시문예회관(064-54-5211)에서 열린다. 한국선면예술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선면전에는 법성·일당스님, 황남재 강행복 강승희 씨 등의 불교작가와 산수화 화조도 등이 그려진 아름다운 부채 1백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오현옥씨 안무 26·27일 동송동 문예회관

아름다운 이 시대. 경제난국으로 더욱 초조하고 삶의 좌표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 시대인들에게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4성제(四聖諦)를 몸짓으로 형상화시킨 현대무용 발표회가 열린다.

불자 무용가 오현옥씨는 26·27일 양일간 저녁 7시30분 동송동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직접 안무한 '반야'를 공연한다.

'반야'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된 다. 무대는 3~4분간 적멸이 흐르며 아무것도 없는 무(無)로 시작

사성제 몸짓 형상화

된다. 제1장 '고제(苦諦)의 춤'에서는 인간이 사는 현실세계가 필연적으로 고통의 세계임을, 2장 '집제(集諦)의 춤'에서는 사람이 미혹속에서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것은 번뇌에 의한 무명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3장 '멸제(滅諦)의 춤'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여러식음과 욕심이라는 번뇌를 말각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4장 '도제(道諦)의 춤'에서는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나아가려면 장애와 무명을 풀기 위한 수행실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 '반야'는 모든 괴로움이 존재하는 이 언덕을 건너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곳,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정진과 지혜에 대한 회귀를 가장 열정적이고 원초적인 몸짓언어인 춤으로 표현한다.

오현 옥씨 안무가 오현옥씨는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을 춤으로 형상화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지만 내



경쟁 끝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라며 무용 '반야'를 연작 시리즈

로 만들어 나갈 것을 서원했다고 밝힌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야'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해법을 제시해주는 근원적인 예지의 춤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96년 유대인학살과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동시에 표현했던 '가스 챔버'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던 오현옥씨는 한양대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나와 미국 연수를 마친 후 현재 현대무용단 '탐'의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오현옥씨 외에 김미경 김수정 김현진 유희주 박소현씨 등이 출연한다. 선화가 성룡스님이 무대미술을 맡았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29>

작은 시내 저절로 빙 둘러

金塘小瀾自瀟瀟 (금당소간자영호) 황금 못 작은 시내 저절로 빙 둘러
芳草垂楊一洞開 (방초수양일동개) 꽃다운 풀 늘어진 버들 한 골짜기 열리다
春入雲山長不出 (춘입운산장불출) 봄은 구름 산에 들어 오래 나가지 않고
水流人世定無回 (수류인세정무회) 물은 속세로 흘러 돌아올 기약 없다
行持研匣時清筆 (행지연함시유필) (행지연함시유필) 베틀 집 갖고 다녀 때로 붓을 적시고
坐擁茶爐試墨灰 (좌옹차루시묵회) 차 화로 끼고 앉아 재에다 글씨 쓰다
憶與琴湖遊岸上 (억여금호유안상) (억여금호유안상) 금호강 언덕에서 놀았던 기억 있으니
幾年玄觀峯桃來 (기년현관상도래) 어느해 오묘한 관상으로 복사꽃 보고 왔던가.

연과대사의 '장춘동잠시(長春洞雜詩)'의 하나이다. 장춘 동은 해남의 유대산으로 은 골짜기가 다 유채꽃이어서 장춘 동이라 한다. 구름산이라 하였으니 들어온 봄이 길을 잃어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 이 산골은 향시 봄인 셈이다.

그러나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다. 물은 속세로 흘러 내려 돌아오지 못한다. 산사의 이 그윽한 소식을 전하느라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가. 이

대구의 묘가 재미있다. 가고 오미 대청이 되어 자연의 조화를 돋보이게 한다. 대사는 문 넘이자 시인이자 분별하다. 스방사우를 주변에 두고 있다. 나들이의 걸음에도 붓과 베틀을 가지고 다닌다. 시상이 때 오르면 어디에서나 붓에 먹물 묻는다. 참으로 운치있는 일이다. 화로 옆에 앉아서도 볼 꺼 호르고 있는 것이다. 그 옆으로 수양 방초가 늘어져 있다. 이 수양버들이나 꽃다운 풀은 봄의 진령사이다. 이들이 봄을 실어다 준 것이다. 그러기에 봄이 유대산으로 들었다 하였다. 이렇게 한 번 들어온 봄은 나가지 않는다. 길이 나가지 않다 하였다. 구름산이라 하였으니 들어온 봄이 길을 잃어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 이 산골은 향시 봄인 셈이다.

모든 존재가 삶이 대청의 맞물림이 있는 법이니. 산 속의 한가함이나 적요함은 때로는 바깥 세상을 동경 아닌 동경함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대사도 그 어느 시절인가 함께 감상했던 산 아래 마을의 복사꽃이 생각났다. 산속의 봄에서 산 밖의 봄을 그리는 것이다. 역시 승·속을 어우른 스님의 자세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세 주인공 자기와의 한판싸움

박일문씨 구도소설 '적멸' 펴내



◇박일문씨

반승반속(半僧半俗)의 떠돌이 삶을 살아온 작가 박일문씨(37)가 구도소설 '적멸'(민음사 판)을 펴냈다. 저자는 세계와 자기와의 한판 싸움을 벌이는 인간들의 절절한 모습을 그리면서 '적멸'이라는 절대미를 완성해냈다. '적멸'은 불교 세계를 그리려 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오묘한 무대가 되기에 충분한 영주 부처사 두랑수전을 공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화려한 화염의 경지, 선정삼매의 경지가 아닌 거칠고 거친 불교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 운수행각하는 구도자들이 보여 주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바로 '적멸'임을 말한다.

결심하고 부처사로 들어가서 무애, 적묵, 학승 스님과 함께 수도하는 과정이 즐거리의 축을 이룬다. 무애는 술과 계집질을 일삼는 괴짜행각을 벌이면서 화두선이든, 참선이든 모든 수행방법을 거부하고 조롱한다. 적묵은 외진 암자에서 묵언정진하다 마침내 소신공양을 택한다. 학승은 선(禪)보다는 교(敎)에 가까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늘 조용히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인물과 기이한 인연을 지닌 선묘라는 여인이 출중듯이 여기 자기 색정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명명된 무애(無涯) 적묵(寂墨) 학승(學能)은 말 그대로 인물의 성격 혹은 존재론적 표상과 직결된다. 그러나 저자거리에서 장삼이사의 삶을 꺼안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무애의 대승적 깨달음의 지향이나 적묵의 소승적 율법정진은 방법은 다르지만 적멸회임을 향한 본질은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적묵스님을 사랑하는 선묘의 애절한 구애와 그녀의 죽음은 예외의 덧없음을 새긴다.

92년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제16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한 박씨는 고교시절 출가한 이후 출가와 환속을 되풀이하다 88년 백암사 말사 문빈정사에서 본격적인 수도생활을 했다. 문단에 데뷔한 뒤 산에서 내려와 대승적 삶을 택한 자신의 이력이 '적멸'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

달마대사 인터넷에 떴다

조신우씨 '달선재마성' 홈페이지 개설

중국 선불교의 초조 달마대사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 경남 창원외의 원로 불교미술가 조신우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에 '달선재 마성(達禪齋 摩性)'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달마대사 8폭벽동 등 자신이 한지에 그린 각종 달마 그림 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능하다. 주소는 'http://user.chollian.net/~shift200'

이 사이트는 우리말과 일본어로 돼 있으며, 달마대사를 인터넷으로 감상하는 것은 물론 작품구입도 가능하다.

"용주사 삼불회도 김홍도작 아니다"

문명대학교수·김경섭씨 공동연구 발표 "1910년대 축연·철유스님등 화승 작품"

18세기 말 김홍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용주사 삼불회도(三佛會圖)가 1910년대 축연(竺衍) 등 용주사 불화의 사실적 현실주의 양식은 18세기 말 불화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래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양화의 유입으로 인해 이상적인 불경보다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된 근대불화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밝혔다.

양명암법에 의한 채색, 현실주의적인 형태, 혼탁해진 중간 채색 등 용주사 불화의 사실적 현실주의 양식은 18세기 말 불화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래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양화의 유입으로 인해 이상적인 불경보다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된 근대불화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밝혔다.

16일 한국미술사연구소 제57회 강좌미술사 학술발표회에서 문명대학교수(동국대 미술학과)와 김경섭씨(문명대 박물관)는 '용주사 삼불회도(도)의 연구'라는 공동연구 발표에서 "전면화된 서

양명암법에 의한 채색, 현실주의적인 형태, 혼탁해진 중간 채색 등 용주사 불화의 사실적 현실주의 양식은 18세기 말 불화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래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양화의 유입으로 인해 이상적인 불경보다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된 근대불화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밝혔다.



◇김홍도(작이 아니라) 1910년대 조성된 근대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용주사 삼불회도(부분).

체표현법도 감로왕도의 존상 등 조선 후기 불화에 자주 나타나 김홍도만의 기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명대학교수는 "용주사 창건시 불화제작에 25명의 화승과 함께 김홍도가 참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때 조성된 삼불회도는 어떤 이유로 사

견해는 다른 불화와의 양식비교 없이 지나치게 문헌기록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탁월한 구성의 묘와 얼굴을 비롯한 피부 전체의 음영법은 조선 후기 불화나 초상화에 사용되던 기법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를 길고 늘씬하게 그리는 인

라지고 새로이 조성된 작품을 봉안했을 것"이라며 "그 시기는 용주사가 경기이남의 대본산이었던 1912년에서 1915년 사이이며 조성지는 1913년에 용주사 신중도를 그렸던 축연·철유 등 금강산 일대에서 활약했던 화승들이었다"고 말했다. <석>

부탄예술단 라마춤 공연

부탄의 라마춤 11명이 19일 보성 대원사(주지 원장)에서 전통 티벳 라마춤을 선보였다. 10월31일까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에서 열리는 '티벳불교미술 특별전' 기념으로 방한한 부탄예술단은 불보살을 찬탄하고 번뇌와 수행의 장애를 소멸시킨다는 의미의 화려하고 유연한 라마춤을 소개했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린포체가 마장수기를 실시했다. <보성=주홍직 기자장>



◇부탄예술단은 19일 보성 대원사에서 전통 티벳 라마춤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불자 예술인 연합 대법회

일시 : 1998년 5월 28일(음5.3)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Hotel Sofitel Ambassador)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 회원명단

총 지도법사 : 한자 응 스님
지도 기획실장 : 석청 암 스님

- 고문 박상규 박철원 권익현 김명륜 김덕룡 김중서 장한기 박규재
- 회장 (델런트)이성웅
- 부회장 (델런트)태현실, 이정웅, 박우아, (가수)남진
- 이사 (델런트)이복원, 박용, 이덕화, 서우림, 전원주 (가수)명국환, 한명숙, 남강수 (국악인)김백국, (코미디언)김영하
- 운영이사 이재락
- 감사 정이동
- 사무국장 (델런트)김진오, 사무차장 : 자해성
- 홍보부장 고상선, 홍보차장 원성광
- 기획차장 자광화, 기획과장 혜자광
- 델런트 강태기 권경하 고희준 박정희 김시원 김민배 김동완 김성경 김 정 김혜정 김보미 박태민 박병호 박경순 박운배 박상만 박용식 김하림 백찬기 박광남 반문섭 명성훈 변희봉 이대로 임영식 유승봉 임문수 이춘식 이도원 양재원 임대호 서갑숙 신홍식 전인택 장철근 정성모 전희룡 최한호 황 민 오영갑 장미자
- 가수 김환선 정해순 한영애 김하정 김태곤 차광구 김수연 정재덕 이도형 오영애 거루와다래
- 코미디언 이기철
- 성우 이의선
- 국악인 이은관 이만석 김영빈 박성현 남궁랑 이유라 황정아 이 형 김명순 김순영 조성자
- 무용 장운영 이명희

법어 : 송월주 큰스님 격려사 : 성암도 스님, 이성웅 스님

자문위원(스님)

- 전운 정민 광민 연암 혜인 법성 해성 혜령 연담 세진 성우 법해
- 정명 보경 황정 은일 동광 보선 현공 진공 대우 무애 상운 무영
- 혜명 법기 선우 보륜 성수 법두 해안 관진 덕본 향공 혜관 성근
- 무공 적일 혜능 명신 진천 현법 진관 성심 혜성 도산 정원 지형
- 현오 선래 대권 지우 명진 법관 법지 정각 부용 영조 현진 지산
- 창법 지문 혜월 경승 탄우 지상 동산 광해 정허 송목 정수 청하
- 귀영 정옥 법능 지철 영담 서광 만다 대광 광용 정법 자암 법륜
- 대웅 혜성 원종 중후 성타 범용 중견 범열 범안 묘봉
- 법수원 원송정사 수성정사 혜인정사 효암정사 수성정사 의강정사 지성정사 <무순>

자문위원(재가불자)

- 오형근 이해덕 최수봉 정정선 하정효 이동영 신홍룡 이운신 김석우
- 서종욱 박재용 장정규 최실광 이정기 정덕중 <무순>

대한불자 예술인 연합회

대표 : (02)655-0533 · 섭외부 : 655-0534 FAX, 655-0534 · 기획실 : 823-9136 FAX, 823-9134